

# 필리핀 불라칸 말로로스 연안지역 여성어민들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역량 강화

엘미라 트리나 펠라요

필리핀 불라칸주립대학

# 1-2

## 서론

필리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흔히 '보이지 않는 어민들'로 불린다. 이들이 하는 일은 어획 전 미끼 채취, 어망 수리, 배우자를 위한 식사 준비가 있고, 어획 후에는 물고기를 해안으로 가져오기, 분류하기, 세척하기 등 다양하다. 여성들은 보통 집안일과 관련이 있다. 이들이 연안 공동체에서 생계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어업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사회적 인정도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개발을 위한 최우선 목표는 여성들이 생산적이고 자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여성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파트너로서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 선행연구 검토

역량 강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수립하며,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식량 안보 확대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어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룬다.

사회적 포용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원사용 기회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일이다. 연안 공동체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정책 입안과 시행에서 이들의 복지를 고려한다면 여성어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업에서의 여성 포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사항, 성격, 경험, 활동, 가치에 근거해 여성어민들의 종합적인 초상을 그리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해안 환경에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가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업에서 여성어민들이 겪는 삶과 활동을 살펴보는 민족지학적 연구이다. 양적 설계를 통해 가치와 행동, 신념, 언어, 학습된 패턴을 보여준다.

##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인종지학적 방법으로 참여 관찰, 1:1면담,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한 삼각측량방식이 사용되었다. 참여 관찰은 참가자들의 어로 활동, 언어와 비언어 의사소통, 공동체 전반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1 면담은 18세 이상, 3년 이상 어업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5년 이상 해안 공동체에서 거주한 33명의 여성 어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토론은 역량 강화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선별된 8명의 여성어민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 연구지역

본 연구는 불라칸 말로로스 시 해안 바랑가이 5곳, 즉 바바트닌(Babatnin), 칼릴리가완(Caliligawan), 마실(Masile), 나마얀(Namayan), 파마라완(Pamarawan)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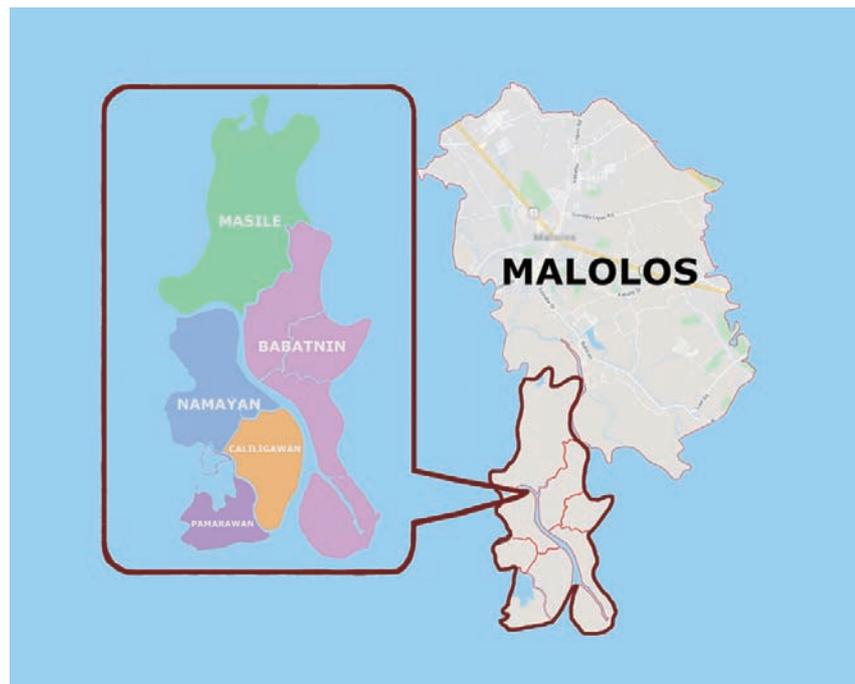


그림 1. 5개의 바랑가이 해안 지역을 포함한 말로로스 시의 지도  
출처: City Google Maps 2020.

**여성어민들의 경험:  
특징, 활동, 믿음, 가치**

**양육자**

1. 나마말라이스단(Namamalaisdaan)/양식업

노동자 여성어민들은 양육자이자 다른 주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팔라이스단(palaisdaan, 양어장)의 운영자로 일한다. 이들은 보통 반타이(bantay)라고 불리며 연 3-4회 주기로 양어장을 세팅하고, 사료 주는 것을 모니터하며, 보호하는 일을 맡는다. 이들은 청소, 배수, 건조, 물 채우기와 같이 양어장 준비도 담당한다. 긴 어획 시간 동안 간단한 장부 작성과 식사도 제공한다.

**위험감수자**

1. 낙구굴라만(Naggugulaman)/해초 채집가

여성어민들은 굴라만-다갓(gulaman-dagat)이라고 알려진 홍조류로부터 추출한 젤리 같은 물질, 요리용 젤라틴 대체물질, 청량음료를 위한 청정제, 양동이를 만들 때 필요한 혼합제를 제공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은 오전 5시경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맨손이나 대나무 막대기로 해초를 배 안으로 퍼올린다. 모아진 해조류는 빠른 건조를 위해 빨랫줄에 널어 둔다. 그 후 지역 시장에 가져가거나 플라스틱 거래상들에게 킬로당 25 필리핀 페소에 판매한다. 이들은 15일간 대개 10-20킬로를 수확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들이 반카(banca) 보트를 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 일을 하기 위해 하루에 30 필리핀 페소를 주고 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2. 마나날라바(Mananalaba)/굴 채집가

탈라바(talaba, 굴)를 채집하는 여성들은 정오인 12시에 일을 시작한다. 이들은 보통 30분가량 혼자서 노를 저어서 채집장소로 간다. 채집장소에 도착하면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고 허리까지 오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망치와 자체 제작한 허리 가방,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그날의 채집을 시작한다. 채집이 끝나면 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굴을 씻고 껍데기를 제거한다. 마나날라바는 밀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익사할 위험이 있다.

3. 나마마클라드(Namamaklad)/어부

나마마클라드 여성은 주기적으로 반카를 타고 나가서 배우자와 함께 조업하며 위험을 감수한다. 조업은 이르면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이

들은 외해에 있는 양식장으로 배를 타고 나가 불안정한 날씨에 노출되고, 오직 달과 별만이 그들의 동료가 된다. 남서부에서 불어오는 하바갓(habagat) 몬순 시기 동안 격랑을 일으키는 강풍은 낚시를 생명을 위협하는 활동으로 만든다. 여성 어부들이 그날 밤 잡은 어획물을 분류하는 지루한 일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강한 신체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임신 8개월 차에도 여전히 일을 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한은 없고 출산 4개월 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이들이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영양을 주기 위해 데리고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 인플루언서

#### 1. 바쿨레라(Bakulera)/수산물 도매상

바쿨레라는 수산물 거래업의 전방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잡은 여성 수산물 거래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바쿨레라는 종종 섬에서 ‘거물’거래상으로 여겨지고, 거래일이 마감되고 최대 10,000-20,000 필리핀 페소의 순수익을 얻는다. 바쿨레라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주요 항구에 나가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의 배는 바니에라(banyera), 즉 독특한 색상의 양동이들과 독자적인 문양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콘시그나시온(consignacion)’, 즉 ‘거물’중개상과 어획물의 가격을 협상한다. 여러 판매상을 통해 다양한 시장으로 유통될 수산물의 가장 큰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 전략가

#### 1. 틴데라(Tindera)/생선 판매상

틴데라는 자신들의 공동체나 먼 곳의 바랑가이에 생선을 판매하는 행상인이다. 이들의 활동은 대개 새벽 3시경 항구에서 모터보트가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시작한다. 이들은 대나무나 플라스틱 바구니와 양동이에 하루 판매량인 5-20kg을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 반카를 타고 마을이나 바랑가이의 주요 도로로 향한다.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면 페디캡(pedicap, 옆에 좌석이 달린 자전거)을 구하고, 가져온 생선을 배열한 뒤 정기적으로 다니는 약 7km 거리의 경로로 행상을 떠난다. 이들은 대개 수키들(suki), 즉 단골고객들에게 자신들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말들을 외친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려주고 사전 주문을 받는다. 생선을 씻거나 야채를 가져다 주는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기술장인

### 1. 마그-아신(Mag-aasin)/소금생산자

염전은 천일염 생산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한다. 소금생산자의 일은 염전 바닥과 응축판, 소금물 펌프 설치와 수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실제 천일염 제조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소금을 수확한다. 수확을 위해서는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 2. 마그바바궁(Magbabagoong)/새우젓갈을 만드는 사람

바궁(Bagoong, 새우젓갈)은 대부분의 음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로 알라망(alamang, 발효된 크릴새우)으로 만든다. 마그바바궁은 오전 4-5시경 크릴새우의 파마마카우(pamamakyaw, 도매 구입)로 시작한다. 소매상들은 크릴새우 양동이 5개 분량 또는 7kg을 산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크릴새우를 씻고 각 양동이마다 7kg의 소금을 뿌려 1주일간 큰 타파얀(tapayan, 크고 오래된 질항아리) 속에서 숙성시킨다. 이들은 맨손으로 용액을 섞는 만큼 숙성된 크릴새우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는다.

### 3. 마그투투요(Magtutuyo)/절인 생선을 만드는 사람

생선은 상하기 쉬워서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훈연이나 햇볕에 말려 가공한 상태로 제공된다. 생선 가공은 당일의 어획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냉장시설이나 냉동설비가 없는 연안 지역에 적합하다. 가공 처리는 생선의 풍미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가마나 연료로 쓸 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성어민들은 훈연은 선호하지 않는다.

## 여성 역량 강화의 도전과제들

### 1.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필리핀의 기후변화가 잦아지고 더욱 강력한 태풍과 바닷물의 극심한 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산호초는 폐사하고 물고기들은 수온이 낮은 바다로 이동했다. 남동부 몬순은 8개월에서 4개월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매일의 음식에 대한 그들의 의존성은 물론 어부들의 잠재적인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

### 2. 오염문제

도시화로 인한 변화는 수산자원의 악화를 가져왔다. 연안 또는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공동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고기 폐사, 생식 문제, 어획량 감소, 기형 어종 발견 등 관련된 피해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 3. 재정적 여유

어업활동으로 얻은 현금 수입은 음식이나 아이들의 용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질구레한 물건 구입 등 다양한 지출에 사용된다. 여성어민들은 이렇게 종종 자신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희생하면서 생선 거래와 관련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제한된다.

### 4. 제품보존

생선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세심한 처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즉시 시장으로 보내지지 않으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즉각적인 가공이 요구된다. 냉장시설과 얼음제조설비가 갖춰지지 못하면 여성어민들이 본토의 거래상들과 경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 결론

본 연구는 어업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최소한의 영역에 그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여성이 소금생산, 절인생선 만들기, 생선 도매상, 새우젓갈 만들기, 생선 판매상, 사실상 어부와 해초 채집, 굴 채취, 양식 노동자 등 연안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것은 어머니나 아내, 연로하신 부모님의 딸로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가족과 공동체의 식량 안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어민들은 여전히 어업 공동체를 위해 마련된 정책에서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진정으로 이들의 복지 향상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여성어민들이 당

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정책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여성은 집단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보였지만 당면한 과제와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향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격려나 지도를 받지는 못했다.

지속가능한 어업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 어업 종사자들은 여성어민들을 더 나은 어업 관리와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협력자로 수용해야 한다.

## 권고

### 파급효과 모델

이 모델은 여성어민에 관한 정책 개선이 연안 환경에서 여성어민들의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여성어민의 생활에서 단 한 가지의 변화만 있어도 연안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생계수단을 자랑스러워 하고 더 노력하도록 고무할 수 있다. 역량 강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확장하도록 자극하고 촉진하며 다른 여성어민들에게는 조력자로서 도움을 준다.